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히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朴 同 奎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 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동방인쇄 (051) 636-9477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 783-0071 ~ 2, FAX: (02) 783-0073

# 본부 회장단 구성... 현안 본격 추진

### 권오현 김근준 정동식 고문 등 11명 재추대 부회장 정행권(수석)·한동대(9회) 등 45명 선임

제27대 본부동창회 회장단이 구성돼 새 집행부의 진취적·전향적 리더십이 기대된다.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은 최근 지난 3월 12일 열린 본부동창회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고문 추대권과 부회장 및 감사 선임권을 행사, 정행권(부산가스개발 회장) 한동대 동문(이상 9회·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 등 45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별표 명단 참조).

#### 방봉우(10회) 등 3명 감사에

또 방봉우(10회·이원회계법인 대표) 박철병(23회·성도회계법인 대표) 김태우 동문(27회·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등 3명을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박 본부회장은 이에 앞서 권오현(경성대 재단 이사장) 김근준(경남학원장) 정동식(이상 1회·개경명예회장) 김영삼(전 대통령) 류영렬(왕도 대표) 송두호(이상 3회·전 국회의원) 정상천(4회·자민련 부총재) 우명수(부산예술문화대학 학장) 주범국(이상 5회·전 경기은행장) 정소영

동문(6회·유니온치과병원장)을 고문으로 재추대하고 조대제 직전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을 새 고문으로 추대했다.

박 본부회장은 회장단 출범과 관련, "열린 동창회·화합하는 동창회·도약하는 동창회'가 되게끔 고문단의 자문에 귀를 기울이고 부회장단과 감사단의 지혜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회장은 이어 "임기 중에 집행부의 의지를 결집해 '모교 60년사'를 편찬하고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며 "갖가지 행사를 흥미롭게 운영하는 방안과 가족동반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직능회 활성화 등에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본부회장은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일식전문 '대어'에서 새 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지난 4월30일 경남고 체육관에서 열린 모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 모교 개교 60돌 생일잔치 성대히

개교60돌을 맞은 경남고는 지난 4월 30일 오전 학교 체육관에서 김향운 교장(13회) 주재로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 및 재학생과 김학현 학교운영위원장(15회) 및 운영위원들, 박동열 본부동창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을 비롯한 정행권 수석부회장(9회·부산가스개발 회장)·한병조 부회장 겸 사무국장(13회)·김형석 홍보이사(16회)·김병수 사무국 총무부장(22회), 성경출 서부경찰서장(25회)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1시 교기입장에 이어 국민의례로 시작된 기념식에서 김향운 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개척하는 뉴프론티어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 1,300여 재학생들 "나는 경고인! 나는 경고인!" 박동열 본부회장 선창에 두번 따라 외쳐

### 4년 근속 후 전근하는 선생님 17명에 기념품

### 경남중, 태종대서 '학교사랑걷기대회' AG 성공적 개최 캠페인도 펼쳐 큰 호응

박동열 본부회장은 김학현 학교운영위원장 추사에 이은 격려사에서 재학생들에게 "나는 경고인이다!"를 두번 외치게 유도한 후 "선배들이 쌓은 위대한 업적을 본받아 모교의 명예 선양의 '말발'이 되라"고 말했다.

박 본부회장은 이에 앞서 4년 간 봉직 후 전근하게 된 17명의 선생님들에게 기념품을 전달,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대통령을 역임한 김영삼 본부고문(3회)을 비롯, 이상택 재경동창회장과 정철기 국회의원(이상 13회) 등이 축하화환, 정문화 국회의원(13회) 등 수많은 동문들이 축전을 보내왔다.

한편 경남중은 앞서 29일 개교기념행사로 '학교사랑걷기대회'를 태종대 체육공원과 순환도로에서 펼쳤다. 강무기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은 이날 오전 10시 태종대 체육공원에서 기념식을 갖고 1시간 동안 순환도로에서 걷기대회를 벌였다.

또 재학생들은 체육공원(1학년생)·자갈마당(2학년생)·공원입구 및 주차장(3학년생)에서 각종 오물을 청소하는 자연보호활동을 벌였고, 3학년 3개반은 태종대공원 입구에서 아시안게임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 신임 부회장 명단

- △정행권(9회·부산가스개발 회장)
- △한동대(9회·신경정신과의원장)
- △강진평(10회·부광산업 대표이사)
- △오강욱(10회·남선곡산 대표이사)
- △안강태(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 △오원수(11회·대한제강 회장)
- △강수현(12회·대동벽지 대표이사)
- △왕한균(12회·대양지류 대표이사)
- △장 청(13회·세무회계사 대표)
- △조동구(13회·동우영상 대표이사)
- △한병조(13회·법무사)
- △박병선(14회·신홍올테크 회장)
- △이종민(14회·공항공공사)
- △오봉석(15회·동일건축 대표이사)

- △송규정(16회·윈스틸 대표이사)
- △진병일(16회·대아건설 부사장)
- △서정승(17회·서정승산부인과의원장)
- △김길제(18회·MSC 대표이사)
- △이성일(18회·삼보산업 전무)
- △석무관(19회·천연레포츠타운 회장)
- △이용흥(19회·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 △진경일(20회·영신 대표이사)
- △허남균(20회·현항공산업 대표이사)
- △최민석(21회·유원산업 회장)
- △최재권(21회·현승미디어 부사장)
- △박재상(22회·천일여객 대표이사)
- △유재진(22회·미창석유공업 회장)
- △정상수(22회·제일농수산 대표)
- △김종규(23회·변호사)
- △박기욱(23회·삼오정 대표)

- △박홍규(24회·박소아과의원장)
- △최중식(24회·변호사)
- △김진철(25회·디에스아이 대표이사)
- △서병수(25회·한나라당 해운대지구당 위원장)
- △강인백(26회·동흥실업 대표이사)
- △윤정환(27회·서진섬유 대표이사)
- △최강호(28회·진영수산 피자사업부 대표)
- △양길용(29회·동남야해운 대표이사)
- △윤성덕(30회·태광 부사장)
- △최거훈(30회·법무법인 천지 변호사)
- △박무철(31회·박무철치과의원장)
- △박명진(33회·고려종합토건 대표이사)
- △류세호(34회·남양석유 대표이사)
- △장인화(35회·동일철강 대표이사)
- △정윤성(35회·협성빌딩 상무이사)

## 환경 사랑의 화장실 문화를 추구합니다. 막힘 없는 초절수의 진공식 변기 시스템

<서울 상암월드컵 축구장 옆 캠핑장 납품 모델>

- 1회 수세기 1.2리터 물 사용 (보통 수세식의 1/10 정도)
- 물이 부족한 경우의 수세기 변기 시스템으로 절대 유리
- 진공배관을 이용한 약 4미터의 역배관으로
- 지하실 공간 자체에 화장실 배치 가능, 악취 제거 기능 동시 보유
- 이동식 화장실 적용시 진공식 변기 시스템 장점 효과 극대화 (임대도 가능)
- 수십 년간 적용해온 여객선과 항공기에 의해 입증된 실용화
- 배관 내부 막힘 현상이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므로 보수 유지 저렴

특허  
제품!!

**제트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찬(25회)  
Tel : 부산 (051) 636-0976. 양산 (055) 384-3700



장자의 '양생주(養生主)' 편을 보면 양(梁)나라 혜왕시대에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 등을 잡는 사람 중에 달인의 경지에 오른 '포정'이란 일꾼의 이야기가 나온다.

훌륭한 일꾼은 소를 잡는 데 사용하는 칼을 1년에 한 번 바꾸고, 보통의 일꾼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꾼다. 그러나 이 포정이란 달인은 19년 동안 칼을 사용하였고 잡은 소도 수천 마리나 되었지만 그 칼날은 지금 막 새로 솥돌에다 간 것과 같았다.

훌륭한 일꾼은 칼을 사용하여 소를 잡을 때에 살을 베기 때문에 칼날이 살에 부딪혀 칼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칼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포정이란 달인은 소를 잡는데 도가 통해 달인의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소를 잡을 때에 눈으로 소를 보는 것

### 시 평

이준성

제30회 · 부천세무서장



## 도축인 포정과 세무인

이 아니라 영감에 의하여 소를 대하였다. 소 잡는 일도 지극정성을 다하면 도사의 경지에 이르게 되듯이, 세무인(稅務人)도 세무업무에 지극정성을 다해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는 도가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세무업무도 칼을 사용하여 소를 잡는 일 만큼이나 칼(조사장대)이 상하기 쉽고 부러지기도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한다.

세무조사가 신고지도의 경우에서 보면 납세자와 마찰이나 소리만 요란하지 별 성과는 없는 경우도 흔히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본다.

이런 경우는 소 잡는 경우에 비유하면 칼을 부러뜨리는 경우와 같다 할 것이다. 세무조사의 경우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조사 공무원은 조사처에 일단 나가면 그곳의 세무 은닉 사항이나 문

제점이 영감에 의해 떠올라 조사를 하다보면 조사처의 납세자도 감탄을 할 정도로 신통하게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조사 공무원을 존경하며 그의 납세지도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무인들은 세법이나 회계, 컴퓨터 등의 전문지식 확충은 물론 경제 상황이나 개별기업의 정보수집 및 탐구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등 자기 실력을 연마해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를 대함에 있어 스스로를 낮추고 진심으로 친절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문 직업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세무인은 세무업무에 도가 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도사라고 부르며 존경하게 될 것이다.

# 제13회, 기별 낚시대회 '왕중왕'

MVP 노태규(19회) · 조별 우승 김대두(20회) 김성재(22회) 박종우(32회)

제13회동기회가 올해 기별대항 낚시대회에서 단체우승을 낚아 금빛 찬란한 용마기를 품에 안았다.

지난 4월 21일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근교 장안지 일대에서 열린 동창회장기 쟁탈 제13회 기별대항 낚시대회(주최 본부동창회·주관 경수회)에서 제13회(선수 백명조 박양웅 최박지)는 모두 545cm의 봉어를 낚아 올려 왕중왕이 됐다.

준우승은 제21회B(선수 강수경 김홍진 이성집-483cm), 3위는 제31회(선수 이의환 김진국 박정호-480cm)가 수상했다.

개인전에서 우승은 202cm를 올린 노태규, 준우승은 이정철(34회), 3위는 김형우 동문(38회)이 각각 행운을 낚았다.

조별전 녹조 우승은 김대두(20회)·준우승은 장궁상(16회)·3위는 강우훈(17회), 청조 우승은 김성재(22회A)·준우승은 김정규(32회)·3위는 서승서(19회), 홍조 우승은 박종우(32회)·준우승은 홍상호(20회)·3위는 강덕용 동문(18회A)이 차지했다.



제13회 기별대항 낚시대회에서 왕중왕에 오른 제13회팀 대표선수원씨가 권영일 경수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있다. 아래는 진주 장안지에서 대어를 낚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선수들.

감투상은 제22회B(선수 김완식 유광찬 전민수), 장려상은 제39회(선수 김병기 안영준 최일수), 자연보호상은 제6회(김성수 최상해 허광열)가 각각 받았다.

한편 이날 입장식은 오전 7시부터 경남예술아카데미 운동장에서 새벽 4시30분 부산을 출발한

대회 임원·선수·응원단 등 27개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경일 경수회장(20회) 주재로 거행됐다.

대회는 낮 12시 경기종료에 이어 1시간30분 넘게 치러진 계측 결과에 따라 시상하고 단합회를 끝으로 마쳤다.

### 한병조 본부 부회장(13회) 사무국장 겸임 발령



본부동창회 사무국장에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병조 동문(13회·법무사·사진)이 임명됐다. 한 신입국장은 지난 4년 간 헌신한 최독호 국장(11회) 후임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국장은 법원 간부공무원 출신

이다. 동기회 회장 때는 짧은 기간 중 기금 7,000여만 원을 조성하는 등 조직관리에 뛰어 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한 국장은 본부동창회 숙원사업의 하나인 용마바둑회를 지난해 창립, 초대회장을 맡아 제1회 기별대항바둑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어수일(5회) '21C 우수학자 2000명' 선정



어수일 동문(5회·사진)은 영국 캠브리지대학이 세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들을 선정하는 '21세기 우수학자 2000명'에 뽑혀 메달을 받았다.

어 동문은 그간 경제 관련서 7권과 논문 100편을 발표했고 '협동조합론'은 한국 농촌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대학측으로부터 받았다.

건국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어 동문은 육군헌병학교 교수와 홍익대 숙명여대 건국대 등 강사를 거쳐 1971년 미국에 건너

가 89~93년까지 나약칼리지 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뉴욕금융경제연구소장과 국제회계학회 뉴욕연구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 강영주(16회) 증권거래소 이사장 선임



강영주 동문(16회)은 금융통화위원 재임 중 지난 4월 18일 열린 증권거래소 회원 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강 동문은 행정고시(9회)에 합격, 재무부 경제협력국장·국세심판소장·한국은행 감사·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냈다.



### 제21회 세동문 CEO 발탁 "경사"

허창수·김갑렬 LG건설 회장·사장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 선임

허창수 동문

제21회 동기생 3명 중 2명은 같은 대기업 회장과 사장으로, 다른 1명은 경제지 사장으로 발탁돼 화제이다. 허창수·김갑렬·전재호 동문이 화제의 주인공.



허창수 김갑렬 동문은 최근 열린 LG건설 주주총회에서 각각 대표이사 회장과 사장으로 선임됐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허 동문은 LG전선 회장을 역임했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LG건설 부사장에서 이번 주총에서 사장으로 선임됐다.

전재호 동문은 넥스트미디어 홀딩스 회장실장 재임 중 최근 파이낸셜뉴스 사장으로 선임됐다.

전 동문은 대한항공을 거쳐 국민일보 회장 비서실장·광고담당 상무이사·부사장을 지냈고 N-TV 사장과 TV가이드(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 류충일(14회) 부산의료원 원장 발탁



부산의료원 제11대 원장에 취임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류 동문은 이 대학 정형외과 교수로 후학 지도에 열정을 쏟았고 지난 94년 5월 20일부터 97년 5월 19일까지 3년 간 부산대 병원장(18대)을 역임했다.

류충일 동문(14회·사진)은 지난 3월 28일 지방공사

### 석무관(19회) 국제LC 부산지구 부총재



석무관 동문(19회·사진)은 지난 3월 23일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제31차 대의원대회에서 FY2002~2003 지구부총재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석 동문은 내년에 지구총재로 취임할 예정이다. 본부동창회 부회장인 석 동문은 지난 80년대 후반 동기회 회장을 맡아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

라 지금까지 동창회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석 동문은 23년 간 소속 라이온스클럽(현대LC)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에서 각종 직책을 맡아 봉사·헌신해 오고 있다.

석 동문이 내년에 국제라이온스협회 부산지구 총재에 취임하게 되면 동문으로서 총재를 맡은 라이온은 김성대(3회) 정행권 동문(9회)에 이어 세 번째가 돼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더 한층 빛나게 된다.



# '60세 청년' 170여명 감동의 축제

## 제16회 홈커밍 한마당 해운대서 이틀간 즐겨

제16회 동고회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제가 지난 4월 20~21일 이틀간 경남중·고교 교정을 비롯, 해운대관광특구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 서울을 비롯, 국내 곳곳과 이역만리 미국 뉴욕 및 워싱턴, 캐나다 등에서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행사 첫날인 20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1층 대연회장에서 막을 올린 한마당 잔치는 기념식과 버라이어티쇼로 위어져 '60세 청년'들을 열광과 감동 속으로 몰아 넣었다.

입장한 동문들은 연회장 측면에 전시된 '추억의 사진(반별 앨범사진·졸업후 각종 사진)'을 감상, 절절 웃으며 한참동안 타임머신을 타기도 했다.

본부동창회에서는 박동열 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과 한병조 부회장, 김병수 총무부장 등이



홈커밍데이 첫날 모교에서 포즈를 취한 170여 동문들(사진 위아 아래) 저녁 해운대 한화리조트 대연회장에서도 축제를 즐기고 여흥을 토했다.

## 차상영 성기식 강종국 본부동창회 공로패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차상영 축제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1부 기념식은 국민 의례·표창·윤영식 이훈민 부산 및

서울동고회장 인사·박동열 본부회장 격려사·송규정 남원탁 부산 및 서울동고회 고문 축배 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 강종국 총무).

앞서 박동열 본부회장은 차상영 성기식 강종국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육군참모총장인 김관규 동문 등이 축전을 보내왔고, 캐나

다의 엄주익·사카고의 유정호·뉴욕의 고소현 손갑출 천을모 동문이 자리를 한층 빛내주었다.

2부 버라이어티쇼는 테너 정광동문(영남대 교수)의 가곡 열창, 각설이 타령, 초창 여가수의 노래, 반별 노래 및 장기자랑 등이 열거

정호(사카고)·뉴욕 및 LA친구들(회장 정연웅)이 행사에 특찬했다.

한편 준비위는 앞서 18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김근준 김재정 주상우 김일세 선생님 등 7명의 은사를 초빙, 기념품을 전달하고 만찬을 베푸는 등 사제의 정을 나눴다.

## 미국·캐나다서 다수 참석 백사장서 맨발로 뛰놀고

를 고조시켰고, 고가제창(지휘 강원경)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본부동창회가 특찬한 금메지 2개 중 1개는 이상대 동문이 받았다.

공식행사가 끝나자 동문들은 밤늦게까지 해운대 백사장 포장마차와 한화리조트 및 로얄킹덤호텔에서 2, 3차를 즐겼다.

앞서 이날 오후에는 경남중·고교를 방문, 기념사업비를 전달한 후 교정에서 기념촬영을 했고 크게 발전한 학교를 둘러본 후 해운대로 이동했다.

뒷날 21일 아침 서울 등지 동문 56명은 금수북국집에서 해장을 했고, 술김에 백사장서 맨발로 뛰노는 재롱(?)을 부리기도, 이어 달맞이꽃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후라 경고!"를 외친 후 석별의 정을 나눴다.

노승탁(서울)·윤세진(부산)·유

## 제13회 새 회장 구창덕

제13회동기회는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서구 서대신동 '산정(이범경 동문 운영)'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구창덕 동문을 선출했다.

김향운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임원 개선을 통해 회장에 이어 수석부회장에 박영춘, 감사에 신민철 서종화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 제15회 정창환 회장 유임

제15회동기회는 지난 3월 29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동광동 부산호텔 후 레지아홀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어 정창환 회장(변호사·사진)을 유임시킴과 동시에 집행부를 재선임했다.

이날 총회를 주재한 정 회장은 임원개선에서 동고회 발전을 위해 1년 간 회장직을 더 맡아 달라는 회원들의 간청에 여러 차례

에 걸친 자신의 완강한 고사를 접고 '1년 유임'을 수락했다. 김판열 총무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 및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 유임에 따른 집행부 재선임안과 강무송 최원수 동문의 감사선임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제25회동기회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30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빌딩 대림월드뷰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 제영성 회장(제영성내과의원장·사진)을 유임시켰다.

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제영성  
△수석부회장=김종현  
△총무=옥동훈(홍보) 여성조(재무) 최동하 이상화(이상 섭외).

제12회 이사회의결...초대 산우회장 남기용



지난 3월29일 저녁 부산호텔 후레지아홀에서 열린 제15회 동고회 2002년 정기총회.

## 산우회 출범 5월 12일 창립기념 산행 9월말이나 10월초 경부 단합대회

제12회 이사회의결...초대 산우회장 남기용

제12회동기회는 지난 4월 12일 오후 6시30분 부산 서구 서대신동 '동경초밥'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어 경부단합대회 개최와 산우회 발족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남기용 회장이 주재한 회의는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경부 단합대회, 오는 5월 11일 구덕산에서 산우회 창립기념 등산대회를 각각 열기로 의결했다.

산우회 초대회장은 남 동고회장(문교산업 대표이사·사진)이 겸임토록 했다.

## 산우회·기우회 결성 조직강화 울산회, 창립기념 대회 열어

'동문 만남의 날(매월 2일)'을 제정하고 전용사무실을 운영, 용마가족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고 있는 울산지역동창회는 최근 산우회와 기우회를 잇따라 결성해 유대강화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울산회(회장 김형수·14회) 산우회 초대회장 변봉규(7회) 기우회 초대회장 손용석(16회) 바둑대회 우승 김용섭(28회)

28일 경남 언양 근교 가지산에서 용마가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우회 출범기념 등산대회를 열었다.

울산회는 앞서 같은 달 2일 '울산용마산우회' 창립총회를 개최, 회장에 변봉규(7회)·부회장에 박홍조(22회·삼우교통 대표이사)·총무에 김종식 동

문(34회·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울산회는 같은 달 13일 '울산용마기우회' 창립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구성한 후 기념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회장에 손용석(16회·보람병원 원 여성의학연구소장)·부회장에 안만수·18회·울산대학교 체육대학 교수)·총무에 양시욱 동문(25회·대명기원 대표)을 각각 선임했다.

이어 열린 바둑대회에서 우승은 김용섭(28회)·준우승은 윤종철(27회)·3위는 이승열(28회)·4위는 이동성 동문(23회)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총회는 회장에 손용석(16회·보람병원 원 여성의학연구소장)·부회장에 안만수·18회·울산대학교 체육대학 교수)·총무에 양시욱 동문(25회·대명기원 대표)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총회는 회장에 손용석(16회·보람병원 원 여성의학연구소장)·부회장에 안만수·18회·울산대학교 체육대학 교수)·총무에 양시욱 동문(25회·대명기원 대표)을 각각 선임했다.

## 2002년 경남중고교 제28회 임원명단

고 문 김용원 김만중 서영대 우건식 조광제

회 장 이만수

부회장 이원철 임재홍 강용수 강현안 어청우 이승하 임원기 김용진

감 사 배정환

총 무 김치운

이 사 백창덕(섭외) 안 풍(편집) 정인식(홍보)

구영소 김관세 김명영 김명준 김부운 김상정 김영철 김용희 김우택 김원홍 김재범 김정유 김정현 김준배 김준연 김창준 김태완 김형진 노승만 노영현 문형재 박병곤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진국 박현호 백선용 빈재석 송재성

양동욱 양종명 엄호성 오민석 오정완 유봉수 윤경섭 윤덕승 윤명수 이대식 이만재 이민우 이봉근 이성형 이승준 이원용 이인재 이재원 이종태 이진우 정근재 정성목 정윤현 정원형 조석태 조영철 최강호 최용석 최원배 최종철 최태열 탁충배 한기웅 황장두

재경회장 김현수 재경총무 남백희 울산회장 권기택 마·창회장 정용주 마·창총무 정해영



# “연회비 모두 빨리 내기로 했어요”

제29회재경동기회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2가 '한일관'에서 올해 첫 임시총회를 열었다. 한승경 회장(우대하 한승경 피부과의원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어진우 총무의 사회로 진행. 지난해 결산보고(각종 경조금·동기회 행사 보조

**제29회재경동기회  
임시총회 열어 결의  
조직활성화 위해  
적극 성원 한마음**

금·재경동창회 분담금 등 약 1,000만원 지출)를 승인했다. 한편 총회는 연회비(1인 5만원)를 조속히 납부기로 결의했다. 이는 동기회 운영이 연회비·특찬금 등에 의존하는 만큼 수입규모가 지출규모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공감한 결과이다.

## 제17회 정해전 회장 유임



제17회 동기회는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호포호텔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를 열어 정해전 회장(펜더상사 대표·사진)을 유임시켰고 정량부

동문을 감사로 선임했다. 정 회장은 총회를 주재,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 개선을 통해 장정용 신장아 동문을 총무로 지명했다. 한편 본부동창회 부회장과 이사 추천을 위한 올해 1차 이사회를 4월 25일 오후 7시 산정농원에서 열기로 했다.

## 졸업 50주년 기념 홈커밍 준비 박차 제6회 신입회장 허광렬

제6회 동기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사하구 사상동 파라곤호텔(전무이사 배종권·6회) 2층 뷔페홀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 허광렬 동문(세무회



제6회동기회 동문들이 2002년 정기총회에서 정담을 나누고 있다.

계사·전 동래고 교장)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경택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허 회장에 이어 부회장에 배문수 정건용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새 집행부는 오는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졸업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 체제

로 전환,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 제30회 동기회장 김병기 재경회장 양석모 선임



제30회 동기회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무역회관 뷔페홀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어 김병기 동문(한겨레치과의원장·사진 위)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송영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업경과 및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다.

김병기 신입회장은 앞으로 산우회 바둑회 등 결성에 적극 나서 조직 활성화와 동문 유대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재경동기회에서도 이날 같은 시간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초가집에서 한효용 회장 주재로 정기총회를 열어 양석모 동문(한츠만코리아 대표이사·사진 아래)을 신입회장으로 뽑았다.

## 제34회 회장 정하태



제34회 동기회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골드라인 레스토랑 대연 회장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어 신입회장에 정하태 동문(신한일가전 대표·사진)을 선임했다.

황병주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제28회 동문·가족들이 단석산 등산대회를 마치고 정답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단석산서 심신단련 '즉석모델' 촬영도

제28회 가족동반 산행대회 제28회 동기회는 지난 4월 14일 경북 경주시 건천 근처 단석산에서 이팔산우회 주관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열었다. 이원철 산우회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은 비바람에 꽃잎들이 떨어진 탓으로 기대했던 진달래꽃 구경을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하산길에서 김원홍 동문이 '나도 모델' 주제를 내걸고 즉석모델 콘테스트를 벌여 수많은 부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날 작품들은 연말 송년회 행사 때 전시할 예정이다.

## “무박 2일 월례회 참 재밌어요”

### 제41회 별난 모임... 한밤중·새벽에도 출석

제41회 동기회는 지난 3월 22일 오후 7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돼지꿈'에서 술과 안주가 푸짐한 단합회와 호프집 방문 등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무박2일 일정의 3월 정례회를 열었다. 류지섭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22명이 참석, 오는 4월 21일 경남고~구덕산~꽃마루 코스의 가족동반 등산대회 개최 등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동문들은 월례회 당일 초저녁부터 참석하기 시작하고 회사일이나 개인사업 등으로 얼른 참석하지 못할 때는 자정이 넘거나 꼭두새벽에도 합류해 신바람을 일으킨다. 일행은 뒷날 숙취를 풀기 위해 해장국으로 속을 달랜 다음에야 귀가한다.

## 제44회 회장 임정훈

제44회 동기회는 지난 2월 9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근처 일력일식집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 신입회장에 임정훈 동문(새마당에식장 관리부과장·사진)을 선임했다.



배종세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다.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 “칠순 지나 받은 졸업장에 ‘恨’ 풀어”

### 6.25 한국전쟁 참전 서삼형씨에게 경남고, 학도병 명예졸업장 수여

“칠순을 넘긴 나이에 졸업장을 받고 보니 울고 싶도록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2월 15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경남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56회 졸업식장. 올해 나이 72세인 서삼형씨(해운대구 반여1동)가 '한국전쟁 참전 학도병 명예졸업장'을 받고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중 5학년(당시 19세·지금 고교 2년) 때인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져 그해 8월 16일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한 이래 실로 52년 만에 안은 '명예'이기 때문이다.

'명예'가 된 그는 한국전쟁 당시 미7사단 인천상륙작전과 미10군단 주축의 함남 정진전투에 각각 참가, 큰 공을 올렸다. 중대원 130여 명 중 그를 비롯한 8명만 살아올 정도로 처절했던 정진전투의 공로로 최광무 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1954년 하사로 전역한 그는 바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공직에 투신, 20년 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해 가족과 노년을 보내던 중 최근 부산지방보훈청과 모교측의 노력으로 이날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고 늘 마음에 쌓여 있던 '恨'을 풀게 된 것이다.



54년 만에 한국전쟁 참전 명예졸업장을 받은 서삼형씨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의 간판호텔' 인터블고호텔의 총지배인 서정호 동문(31회·사진)은 지역월드컵경기의 메인 호텔로 주목 받게 하기 위해 '서비스 실명제'와 '국적있는 서비스' 등 전방위 홍보전을 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터블고호텔에 오면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인식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서 동문은 국내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컨벤션홀(650평)의 위용과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의 황홀경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선율 등이 인터블고호텔과 대구를 동시에 오래 기억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전 직원을 주3회 영어·일어 강좌에 참가시키고 있는 것을 비롯해 스페인어 4명·중국어 2명 등 외국어 전문직원 10여 명을 특채했고 외국인 경영



고문을 초빙해 선진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손님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담당직원의 사진이 걸려진 명패를 비치하는 등 '서비스 실명제'를 실시하며, 여직원들의 머리를 한국 전통의 '올림머리'로 하도록 하고 향토음식을 국제화해 메뉴에 올려 놓는 등 '국적있는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호텔업계 입문 16년 만에 특급호텔의 총지배인이 된 서 동문은 부산 조선비치호텔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배인수업을 쌓았고 마산 사보이호텔을 거쳐 대구 크라운호텔 및 파크호텔 등에서 총지배인으로서의 실력을 과시했다.

호텔리어로 활약하면서 경희호텔전문대·경북산업대 경영학과·대구대 호텔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 월드컵 투어 '신선한 만남' 총지휘

대구 인터블고호텔 총지배인 서정호(31회)

국적 있는 서비스 펼쳐 '기억에 남는 대구' 되게끔 정성 쏟아



제14회 새 회장 이종민



제14회동기회는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무역회관 뷔페홀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을 개설했다.

이종민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동기회 사랑방에 나와 우정을 나누자"고 말했다.

모락산 오른 후 보리밥 단합회

제29회, 부인·자녀 동반 제29회재경동기회는 지난 3월 17일 계원예술종합대학을 뒤덮은 모락산에서 산행대회를 열었다.

신불산에 '철쭉꽃우정' 만발

본부 용마산악회 9차 산행대회 성황

본부동창회의 용마산악회 제9차 산행대회(정기)가 지난 3월 24일 경남 양산시 근교 철쭉꽃 만발한 신불산(1,209m)~파래소폭포~배내골 휴양림 코스에서 열렸다.

한동대 산악회장(9회·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을 비롯, 동문 61명과 가족 5명 등 모두 66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개인별 체력형편(?)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A, B팀으로 나눠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산행에 돌입한 일행 중 A팀은 통도사 백련암~영축산 야영장(중식)~신불재~신불산 정상~간월재~파래소폭포~배내골 휴양림 코스에서 체력을 과시했다.

한편 B팀은 백련암~영축산 야영장을 A팀과 함께 의중계 발품을 판 후 점심식사를 했고, 신불재~파래소 갈림길~배내골 휴양림 코스를 택해 심신을 단련했다.

일행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가지산유황온천에서 피로를 푼 후 민물매운탕 전문집인 '춘하추동'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단합회를 개최.

최, 우정을 다졌다.

삼공산악회, 상계봉 올라

제30회동기회 삼공산악회는 지난 3월 17일 금정산 상계봉에서 제74차 산행대회를 펼쳤다.

이날 모임의 이모저모를 정리해 제공한 배경조 동문의 자료에 따르면, 문장호 산악회장이 주재하

고 천성일 산행대장이 리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린이대공원~병풍사~상계봉~남문 코스에서 실시했다.

세찬 봄바람 무학산 정상서 혼쭐

이철산우회 138차 산행... 담배 피우려다 창피당하고

제27회동기회 이철산우회 제138차 산행대회가 지난 4월 14일 경남 마산 근교 무학산(761m)에서 펼쳐졌다.

공원 입장료를 아끼기 위해 매표소를 우회해 공원 안으로 들어가 상계봉을 오른 일행은 행동식으로 허기를 달랜 후 하산, 온천장 목욕을 거쳐 이날 하이라이트인 이원용 동문의 집들이로 대미를 장식했다.

강봉호 산우회장의 리드를 받은 산꾼 12명은 오전 11시30분 산행 들머리인 만날고개를 출발했다.

이날 일행 중 장기남 전 회장 등 7명은 앞서 오전 9시 최초 집결지인 지하철 동래역 앞에서 25인승 콤비로, 진례 간이정류장에서 합류한 5명은 신재욱 승용차로 각각 달려 산행들머리에 닿았다.

4시간30분 동안 비지땀을 흘린 일행은 만날고개~대곡산~능선~정상 조금 지나 6명씩 두팀으로 나눠 점심식사(20여 분 단잠 등 휴식)~서원계곡~백운사 코스에서 심신을 재충전했다.

이날 정상에서 뜻밖의 거센 바람이 불어 몸을 가눌 수 없는데다, 송신탑 위에 장착된 360도 회전 '담배 피우는 모습 잡는 올빼미(카메라)'를 모르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혼쭐이 났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몇몇은 붉은 완장을 찬 감시원 앞에서 "제발 한번 봐 주세요..."하며 짹 짹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일행은 경남 김해 장유에서 목욕을 하고 맥주를 들이킨 후 헤어졌다.

매화마을 관광 헛수고 제137차 산행 백운산서

한편 제137차 산행대회는 지난 3월 10일 전남 광양시 근교 '고로 석약수'로 유명한 백운산(1,217m)에서 강봉호 산우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코스는 들머리인 백운사~헬기장~백운산 정상~헬기장(점심식사)~능선~노랭이재~삼거리~광양제철수련원이다(5시간20분 소요).

일행은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관광을 길이 막혀 차창으로만 눈요기 하고, 그 유명한 하동 신방촌 재첩국도 이판세 동기획 직전회장의 독선(?)에 밀려 민물고기 매운탕으로 대신했다.



무학산 정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철산우회 회원들.

사랑·자연 등 주제 내번째 시집

'사랑은 겨울나무' 이성호(8회) 지음 철순을 바라보는 시인 이성호 동문(8회·인물사진 위)은 최근 자신의 네 번째 시집 '사랑은 겨울나무'를 펴냈다(열린시·값 6천원).

이 동문은 이번 시집의 머리말에서 "나는 아직도 철없는 동심이고, 소년이고, 마음의 자유 천지에서 뛰노는 사슴"이라며 "3년 동안 돌아보고 편린이라도 닦서해 둔 것들을 버리기에 못내 아쉬워, 또 한 권의 책으로 묶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동문의 이번 네 번째 시집에는 사랑 기다림 꽃고향 우정 바다 여행 등산 사찰 등의 시심(詩心)에서 퍼올린 모두 130편의 시가 12부로 나눠 담겨져 있다.

'사랑은 빈 가슴을 채우는 / 어머니 승능 고독의 뒀안길에 그림고 아름다운 꿈을 / 나누을 사람이려면 / 비취빛 사랑을 주세요 메마른 가슴 속에 / 인생의 버거운 상처를 / 만져 줄 사람이려면 / 하늘 같은 사랑을 주세요

아! 당신이 좋아라 / 그 꽃발 꺼지지 않고 / 삶에 빛이 될 사람이려면 / 목숨 바쳐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사람> 4년 전 교단에서 정년퇴임한 이 동문은 이번 '사랑은 겨울나무' 시집에 앞서 △'자연에 맞선 사랑(제1집·96년)' △'인생길 사랑의 길(제2집·97년)' △'살과 꿈의 천기(제3집·99년)'를 펴냈다.



새 책

핵물리학자와 수도승의 한담록

'교수의 일생' 황영선(9회) 지음

변호사인 황영선 동문(9회·인물사진 아래)은 최근 인연 차(茶) 예술 우주 생명 의식 영혼 현실 삶 죽음 등 문제를 '교수의 일생'이라는 책 속에 엮어 펴냈다(살과 꿈·값 1만원).

황 동문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생각 끝에 꾸민 조그마한 이야기는 한 책의 집에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패는 '교수의 일생'이라고 붙였다. 그 집에는 이 방 저 방 등 갖가지 열 개의 공간이 널려 있다. 그리고 이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가 가로질러져 있다. 10개의 공간이 제1편 십문(十門)이고, 대들보가 제2편 일심원(一心源)이다."라고 밝혔다.



'교수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두 줄기의 주류(主流) 중 하나인 10개의 공간(제1편 십문)은 핵물리학자인 주인공 김채리 교수와 평생 수행의 진황스님 간에 펼쳐진 한담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 속에는 이상근 교수와의 대화와 학생들과의 문답도 끼여 관심과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주인공인 김 교수의 일생은 '파란만장' 그대로라고 한다. "어째서 그런가?"에 대한 의문은 '교수의 일생'을 읽어봄으로써 풀릴 것이다.

다년간 본부동창회 부회장을 지낸 황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변호사의 길로 나섰고 부산대 법대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은사소식

허 발=(자택)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리 168-1 심곡마을 현대프리미오아파트 102동 1004호, 031-263-7753

제 1 회

權五賢=(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103동 1404호, 051-612-6020, 051-264-6866

제 8 회

朴世昌=6월 2일 오후 2시 서울 홍제동 버킹홈웨딩홀에서 아들 영현군 결혼 鄭仁浩=5월 26일 오후 2시30분 범일동 하모니웨딩홀타운에서

딸 원주양 결혼 裴德洙=(자택)부산 남구 대연5동 323-6 동원드림타운 103동 202호, 051-611-0609

김문갑=4월 20일 목화예식장에서 아들 수현군 결혼 李昌雨=4월 20일 롯데호텔에서 아들 정한군 결혼

李童根=(보수동) 4월 28일 목화예식장에서 딸 원하양 결혼 李昌圭=5월 11일 오후 2시 한국은행 강남지점 11층 강당에서 장남 상재군 결혼

文昌華=3월 12일 부친 별세. (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24 삼성채르빌아파트 201동 704호, 031-287-1142

朴社乘=(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어디서 무엇을

구성읍 보정리 911-9 대림아파트 108동 901호, 031-266-4622 金永基=(자택이사)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문래LG빌리지 106동 1301호, 02-671-0064, 016-668-0064

廉炳泳=(자택이사)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3-195 문화촌현대아파트 104동 1306호, 崔東禧=1월 15일 모친 별세

제 9 회

金聲鏞=(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중부동 696-1 (18/1) 양산신도시

대동아파트 101동 1202호, 055-385-2194 朴浩一=(자택이사)부산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402 이진아파트 102동 801호, 051-722-5797

田仁奎=(자택이사)부산 사하구 하단1동 가락타운아파트 309동 1205호, 051-207-4190 金利熾=(자택이사)경기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488 늘푸른 벽산아파트 119동 401호, 031-266-7572

李先浩=(자택이사)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57 두산아파트 102동 1203호, 594-7320 崔成吉=(자택이사)서울 은평구 응암동 104-19 2층 201호, 02-358-1848

黃永祚=(자택이사)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706 진흥아파트 147동 2301호, 031-227-7466 故李盛旭=2월 2일 성남천죽교회에서 장남 재훈군 결혼

李興壽=3월 16일 리즈칼튼호텔에서 장남 흥직군 결혼 朴商英=3월 23일 서울 늘봄공원에서 장남 흥준군 결혼

李先浩=3월 24일 남서울웨딩홀에서 3녀 지미양 결혼 金 淸=(주)연화 회장, 2월 외대총동문회 2002년도 외대상 수상

金京喜=(주)용마공영 회장, 자랑스런 용마대상 수상 姜在華=대전 산부인과 원장, 자랑스런 용마 공로상 수상

趙哲濟=3월 12일(재미 시카고) 페암으로 별세



제 10 회

吳基文=(자택이사)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 349-10. 02-395-6692, 011-727-3836

제 11 회

朴章淳=(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348 코오롱아파트 111동 203호. 051-743-4401  
姜秀雄=4월 15일 지병으로 별세  
呂運洛=(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4동 714-144 유림아파트 102동 902호. 051-507-2086

제 12 회

**알림**  
\* 지난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회 2지구(동 연제 부산진)는 회원감소로 해산. 연제구 회원은 4지구(북동래 금정 양산)로, 동구 부산진구 회원은 1지구(중 서 영도)로 각각 편입되었으니 해당 회원들은 참고 바람.  
\* 姜昌秀 朴文基 朴時三 禹清夏 李春相 등 지역회 총무는 지난 동기회 정기총회 때 수고가 많았음.  
趙弘濟=3월 25일 별세  
權重洛=(자택이사)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09 청학주공아파트 304동 502호. 031-841-4377  
金 國=2월 25일 서울에서 모친 별세  
金石用=2월 18일 대동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식 가짐  
金容鎬=2월 19일 반여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식 가짐  
韓春培=2월 21일 부산과학교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식 가짐  
金榮善=1월 30일 모친 별세(영도 해동병원)  
金眞豪=3월 30일 서울에서 모친 별세  
宋世文=4월 13일 부친 별세  
李章雨=1월 18일 모친 별세(삼선병원)  
李鍾翰=(자택이사)부산 남구 문현3동 삼성아파트 112동 1502호  
蔣昇在=2월 24일 부인 윤용화씨 울산에서 별세  
鄭基政=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鄭仁泰=2월 11일 모친 별세(서울 강남성모병원)  
趙哲元=제일 합동법무사 사무소(부민동) 051-242-2244  
朱光助=(자택이사)부산 금곡동 한솔아파트 105동 403호. 051-361-5589  
崔明鎭=3월 22일 부인 김연자씨 별세  
崔成煥=(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860 해인그린빌 112동 704호. 055-363-1108  
許達雄=(자택이사)충남 보령시 죽정동 666-6 현대아파트 101동 1204호. 041-935-1453  
洪龍河=부산 수영구 광안1동 1055-55 (23/1). 051-752-0586

제 13 회

高時準=(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안락2동 153-1 주공아파트 11동 401호  
朴永忠=(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0 대우마리나아파트 204동 1102호  
李孝俊=(자택이사)경남 창원시 상남동 45-1 성원아파트 305동 1201호. 011-9517-6850  
朴安男=(자택이사)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361-85 삼정그린코아 102동 902호. 051-893-4814  
愼性雨=좌천 장안고등학교 교장 부임  
金英植=3월 9일 엄궁교회에서 장녀 수현양 결혼  
鄭文和=4월 3일 토성초등학교에서 정문화 후원의 밤 행사를 동기생들의 후원으로 성황리에 마침  
文顯吉=4월 14일 서울 향군회관 연리지홀에서 딸 정윤양 결혼  
馬東星=2월 7일 모친 별세

제 14 회

盧守德=(주)금양 회장. 051-322-5881~3. 4월 21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차녀 결혼. (자택)051-806-0579  
유정호=재부산 일본총사관 경리부 차장. 051-465-5101~6. 4월 21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장녀 결혼. (자택)051-292-4943  
김경호=(주)서원로직서 부장. 051-624-3340. 4월 21일 대한통운 빌딩 예식부에서 장남 결혼. (자택)051-242-1190  
崔慶烈=(자택이사)부산 북구 금곡동 1898 화명 리버빌아파트 104동 2104호. 051-363-1761  
최성웅=코오롱약국 대표. 경남 마산 내서읍 호계리 10 코오롱상사 내  
文雲龍=(주)프로텍오일 대표이사. 부산 남구 문현동 815 한일오피스텔 1415호. 051-637-3614. (자택)051-632-7818. (주)한국엘에서 35년간 근무하다 후배양성을 위해 명예롭게 퇴직. 회사 설립  
李文燦=(주)아탑. 서울 마포구 도화2동 36 고려아카데미텔2빌딩 604호. 02-701-6277. (자택)02-6737-9477. 016-742-9477

수. 3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방송기자클럽 제6대 회장에 선임

제 18 회

姜永鎬=반여중학교 교감으로 승진. 051-784-0020  
權教七=구서2동 1008-16. 011-847-3011  
金洪國=개금 주공아파트 309동 301호. 011-842-7979  
河自浩=대청동 새들맨션 B동 602호. 017-874-9859  
黃昌煥=대구 남구 대명9동 493-20. 017-847-9850  
黃正男=계성여상. 051-503-8871  
丁達周=서대신동 대림 유진아파트 806호. 051-245-0569  
송한승=송죽학원 이사장. 011-836-5880



李廣祐=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9-309 주공아파트 101동 402호. 02-2248-9084. 016-266-9152  
李龍華=(주)진양식품 무역부 이사. 02-929-4729. (자택)02-934-5527. 019-436-5527  
金成泰=3월 9일 차녀 결혼  
崔秀吉=4월 21일 장녀 결혼  
崔鍾圭=4월 20일 아들 결혼  
朴 實=5월 4일 장녀 결혼  
韓重文=5월 5일 차녀 결혼  
姜輝柱=5월 18일 장녀 결혼  
金澤源=5월 19일 차남 결혼  
金在道=학교법인 동아학숙 사무국장으로 승진.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 051-253-5474. (자택)051-731-2458  
朴炳善=(주)신홍울테크 회장. 051-301-4252. (자택이사)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700-8 협성르네상스타운 108동 1701호. 051-246-4183  
孔欽一=남문초등학교 교장. 051-507-0521. (자택)051-514-3244  
鄭章雄=남산고등학교 교장. 051-516-4382. (자택)051-508-5515  
曹圭台=거제고등학교 교장. 055-681-5205. (자택)055-687-6543  
金和玉=(주)재성종합물류 고문.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1-22. 051-441-4284. (자택)051-703-3631  
安相煥=(주)태평양 환경방제회사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 부산 중구 중앙동5가 11-1 동흥빌딩 301호. 051-467-5353. (자택)051-291-5925  
千金成=해군소설 집필을 위해 순항 항해에 해군사관생도 56기와 같이 승선하여 약3개월간(2001년 10월~2002년 1월) 동남아 및 인도양을 항해하고 귀국. 작가프라자(송월타월직매장) 부산 중구 중앙동1가 26 롯데1번가 13-61호. 051-257-9137. 011-9301-9137  
尹勝弘=(주)지에프 대표이사 회장. 4월 21일 장인 별세

제 15 회

姜賢德=(자택이사)부산 사상구 삼락동 79-7 부양금속 (직장)051-301-6596 (자택)051-242-3348  
李基哲=3월 22일 동래 현대병원에서 모친 별세  
朴皓夫=4월 5일 해운대 오션타워 웨딩홀에서 차녀 계영양 결혼

黃大淵=가락타운아파트 101동 1701호. 017-552-8838  
金宗相=송호가스 대표. 011-854-7776  
朴守元=행진식육점 대표. 051-866-4455  
朴榮復=신아토건(주) 대표. 051-867-5677  
林永燮=부산 사하구 다대1동 자유아파트 111동 1902호. 011-849-9101  
金光浩=(주)MSC 이사. 055-389-1001  
박덕봉=(주)대원 SCN 부회장. 052-289-1700  
金用大=김용대 정형외과 원장. 051-622-0024  
朴鍾淳=박준순 산부인과 원장. 051-323-0555

具亨祐=(상호변경)부민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장  
崔 憑=(병원이전)최정형외과의원. 울산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1B1-1L. 052-211-5861  
姜宰模=3월 9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차남 현상군 결혼  
金昇一=3월 10일 목화예식장에서 차녀 민정양 결혼  
金完植=3월 10일 금강산웨딩홀에서 영애 진희양 결혼  
俞炳龍=3월 16일 하모니웨딩타운에서 장남 창조군 결혼  
金基平=3월 23일 신평 교통회관에서 장남 성종군 결혼  
馬東明=2월 7일 모친 별세  
이상호=1월 5일 모친 별세  
李幸男=(자택이사)부산 사상구 엄궁동 669-2 대림아파트 103동 305호. 051-316-0784  
崔光雄=(자택이사)부산 사하구 괴정1동 자유1차아파트 103동 1202호. 051-966-1232  
徐正旭=(자택이사)울산 남구 무거2동 옥현 주공아파트 313동 704호  
鄭玉鍾=1월 23일 서울 노보텔 엠버서드호텔에서 장녀 윤심양 결혼  
金 薰=2월 3일 코모도호텔에서 차녀 미선양 결혼(동래 현대병원 원장인 조영일 동문 주례)  
朴英武=2월 1일 대전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겸임)에서 사법연수원장으로 승진 취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 031-920-3002  
南基柱=동보상선(주) 고문. 2월 27일 천주교 역삼동성당에서 모친 별세. 02-556-6389  
成漢杓=프레스포럼 아이프레스 대표. 02-3217-1911  
安信博=(주)리영통상 대표이사. 02-3143-0044  
李義一=(주)세중정보기술 대표이사. (사무실이전)02-3783-7373  
李義鎬=(주)이의호방식기술컨설팅 설립 대표이사에 취임. 02-402-5114  
장호조=원자력병원 마취과장. (자택이사)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321동 603호. 02-532-4948  
丁 聰=(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2차아파트 161동 102호. 031-264-6066  
千文碩=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 호주국립대학교 교환교수로 1년간 체류하고 귀국. 02-2123-2685  
韓秀夫=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초대 서울치과대학 박물관장에 취임. 박물관 개소식 가짐. 02-760-2644

제 20 회

文正潤=청조해운 사장. 051-466-6360. 4월 27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에서 장녀 지수양 결혼  
曹秉國=분포중학교 교감. 051-624-6574  
黃明煥=필리핀 SUBIC에 종합휴양시설 갖춘 투엔투리조트호텔 개업. 63-47-224-3331  
李奉九=거제중학교 교장. 소식궁금. 방문 요망. 055-681-3893  
梁承泰=부산지방법원 원장. 051-590-1205  
金韓元=부산중앙여중 교감.  
南基錫=한국해운 이사. 2월 18일 모친 별세  
李銓哲=(주)MCI 회장. 051-521-0167. 4월 22일 모친 별세

제 16 회

韓一郎=대한상사 대표. 지난 11월 10일 장남 영길군 결혼  
宋圭政=(주)윈스틸 대표이사. 로얄킹덤호텔 기념일을 맞아 지난 11월 18일 동기회사무실 전원기장 죽성횃집에서 자연산회 대접. 회사 달력 20부 기증  
崔良珠=(주)암웨이 자영사업자. 지난 11월 20일 동기생 27명 초청. 부산설령탕 양념갈비로 부산 동기생들에게 회식 제공  
俞英明=(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수안동 6-1 새동래아파트 다동 907호  
趙勝男=지난 11월 27일 부친 별세. 2월 9일 모친 별세  
河希鎭=(주)멘토(보험회사) 해운대대리점 이사. 051-807-6964  
李明洙=(자택이사)합천군 합천읍 교동 671-4 시티빌 203호  
尹永植=동기회 회장. 지난 12월 15일 흑송초밥에서 고문단 초청. 송년인사 겸한 간담회 가짐  
朴鍾鳳=해화여중 교장. 지난 12월 16일 장남 근철군 결혼. 12월 22일 결혼턱으로 오복식당에서 23명 초청 대접  
蔡景一=(자택이사)경산시 사동 650 부영2차아파트 205동 1801호. 053-818-4204  
許宗和=경상대 교수(식품공학박사) 동경대학 1년 연수 및 독일 유학 마치고 귀국  
金炯碩=(주)동방인쇄 부사장·부산언론인클럽 기획사무처장. 1월 26일 장남 성윤군 결혼. 오복식당에서 21명 저녁 대접  
文盛煥=소아과원장(의학박사) 1월 26일 코모도호텔 대연회장에서 장남 준혁군 결혼  
朴永秀=1월 27일 장남 정훈군 결혼. 오복식당에서 18명 저녁 회식 제공  
朴宰成=범호수산 대표. 1월 22일 모친 별세  
姜利彥=1월 25일 부친 별세  
宋子文=2월 3일 부친 별세  
盧鉉惠=태평양 피지에서 조업중 일시 귀국. 동기회 저녁회식에 JohnnieWalker Blue 2병 제공  
金仁國=부산대 앞 GAME NEST 개업. 051-516-6986. 지난 12월 동기회사무실 조명을 고급형광등으로 전부 교체  
金哲坤=학장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영전. 051-323-3795  
朱琪珉=서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영전. 051-248-1567

제 21 회

金昌珉=3월 9일 3녀 결혼. 경남 산업(주) 051-469-0456  
李昌熙=계 캐나다. 3월 1일 모친 별세  
朴銘文=금정세무서 징세과 전보. 051-580-6271  
全在浩=서울. 파이낸셜뉴스 사장 취임. 011-702-7841  
許昌秀=서울. LG건설 회장 취임  
金甲烈=서울. LG건설 사장 취임. 019-232-7004  
崔宰鳳=해찬상역 개업. 051-202-2900  
全京秀=서울대 교수. 3월 31일 부친 별세. 02-880-6424  
成樂合=서울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 한나라당 후보. 02-2232-5488  
朴自民=5월 4일 오후 4시 남산제일교회에서 장남 정근군 결혼

제 17 회

鄭海電=동기회 회장. 팬더상사 대표. 부산 서구 토성동2가 4-8  
張政勇=동기회 총무. 우림통운(주) 051-441-6248. 011-579-6249. 부산 사하구 당리동 17-2 혜성아파트 101동1808호.  
辛政兒=동기회 총무. (자택)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성신목화아파트 1동 105호. 016-565-2405  
姜株水=15년만에 동기회 총무직을 그만두고 영도 해동병원 옆 동해약국 경영에 매진. 051-416-1234  
崔舜鉉=LA (자택)691 S IROLO St APT 508 LA CA 90005 U.S.A. (전화)213-388-8460 (가게)323-644-0411  
金基道=외대정책대학원 겸임교



제 19 회

姜永範=(주)협성검정 상무이사. 051-463-6551~3, 부산 수영구 남천동 73-18 IVY 하우스 이사. 051-622-4622  
 姜道相=태화치과 원장. 부산 북구 감전2동 114-1. 051-314-2875  
 姜永守=만경식당 대표. 부산 수영구 광안1동 497-5. 051-755-2281  
 孔基周=공기주산부인과의원장.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50-7. 051-504-2552  
 具玟玉=명인약국 대표. 051-501-6476  
 權哲賢=한나라당 사상지구당 국회의원. 051-305-8181~5  
 金曠宇=신우세탁소 대표. 19회 등산회 총무. 051-202-3219  
 金敬才=세영선박공업(주) 대표 이사. 051-418-4541  
 金圭夏=호산기업 대표. 051-204-6902~4  
 金東奎=덕명수산 대표.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77. 051-412-1098, 416-1098  
 金奉鎬=동화목재(주) 대표이사. 부산 서구 압남동 탑스빌아파트 501호. 051-831-3101  
 金富煥=대동병원 병원장. 051-554-1011~5  
 金石九=부산 동부경찰서 서장. 051-465-6201  
 金成國=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051-510-2126  
 金聖喜=JAL부산지점 이사. 김해 국제공항. 051-972-1820  
 金順鎬=삼희스포츠(주) 대표이사. 051-205-5852~3  
 金榮默=(주)원다 (주)원다판매 서비스 대표이사. 051-203-1881~3, 055-326-1882  
 金龍燁=제일그랜드인쇄사 대표. 051-469-9559  
 金允基=일미성형외과의원장. 051-806-5571  
 金在相=(주)미래고속 대표이사 부사장.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5-3. 051-441-8200  
 오치봉=4월 8일 영락공원에서 영결식

제 22 회

李永和=재경동창회 부회장으로 선출. 02-578-8777  
 金大煥=이남 테크놀로지 대표. 02-511-3031  
 權成述=동영해운 이사. 02-753-0661

제 25 회

姜龍珠=법무사. 1월 22일 부친 별세  
 金龍壽=부산발령. 한국선급협회. 부산 중구 중앙동5가 13. 051-469-4521  
 徐秉洙=해운대 구청장 퇴임  
 成冥出=부산서부경찰서 서장 부임  
 孫元根=(자택)부산 서구 부민동 3가 78. 011-579-2387  
 李在烈=1월 12일 별세  
 이항기=한국수자원공사 조사기획처장. 042-629-2700  
 崔在煥=정복현회계사무소 사무장 (사무실이전)부산 서구 부용동1가 65-3 동아빌딩 4층  
 崔喆國=김해 부원동에 사무실 개소. 055-326-9400, 011-9342-6161

朴淳成=노원구에서 횡집 개업. 02-978-8288  
 朴柱鐸=(자택이사)031-266-8415  
 宋基榮=(자택이사)031-265-2118  
 安桂煥=재경동기회 회장으로 선출. 032-583-8093  
 張炳迪=삼영모방 상무. 031-830-7150  
 김준영=1월 모친 별세  
 金東明=2월 11일 모친 별세  
 梁漢植=한국전력 밀양지점장. 055-354-5374  
 文元京=울산시 행정부시장. 052-272-2721  
 柳在洛=태림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02-404-7474

제 24 회

文輝英=(주)평화감리단 대표이사 취임(4월 1일 부) 051-313-0131  
 裴久允=(개업)4월 22일 남포동에 떡볶이, 밀면전문점 작은동네. 051-245-3177  
 정동화=포항제철 설비기술부장. 이사보 승진(4월 1일 부) 054-220-0482  
 鄭武烈=정무열정형외과의원장. 경북 포항시 해도2동 97-2. 054-275-3358  
 鄭準錫=태극기원 대표 명정하이테크(주) 부산경남1국장. 051-868-9992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4동 714 유림아시아드아파트  
 金度寅=위수금속제강(유) 북경지사 대표. (부산사무소 개설)부산 중구 중앙동4가 88-5 태영빌딩. 051-465-0788  
 金青天=(자택이사)부산 금정구 구서2동 하우스보메 505호. 051-516-2310  
 徐輔浩=(자택이사)부산 서구 압남동 350-1 고려빌라 1106호. 051-254-1254  
 林民湖=부민상호저축은행 이사. 051-240-1807 (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김중섭=해군대령 예편. 현대중공업 특수선 영업부장. 052-230-0101

제 28 회

韓奉哲=아세아경영연구원 원장. 051-241-1995  
 林光洙=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051-609-6400  
 裴貞煥=동기회 감사. 부산은행 동구청 출장소장. 051-464-3093  
 朴容秀=오랜 서울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옴. 동래 현대병원

제 26 회

박정환=1월 2일 모친 별세  
 朴相昊=변호사. 1월 28일 별세

제 27 회

愼壬晟=4월 10일 별세  
 崔景龍=(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벽산아파트 210동 1603호. 051-703-5067, 011-801-5067  
 姜成輔=경향신문 편집1부장. 허리가 아파 서울 풍납동 중앙병원 9206호. 016-251-5290.  
 全京辰=생산기술연구원(천안소재). 3월 31일 부친 별세  
 金州皓=영일테크(엘지펌프 대리점) 대표. 3월 26일 부친 별세. 011-869-2236  
 李源哲=동국대 강남한방병원장.



진료부장. 051-553-6161  
 鄭秀元=(주)현대경영컨설팅. 전문컨설턴트. 051-302-6386  
 李仁洙=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055-249-0301  
 姜炳斗=한빛은행 반여동지점 지점장  
 金洛勳=부산 남구 대연동 31-11 ARC원룸 602호  
 金龍元=법무법인 천지.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1-1 로제스티빌딩 8층. 051-507-7001  
 文炯才=대한투자신탁 마산지점장. 055-224-1500  
 裴眞炫=부산은행 김해 어방지점장. 055-321-1431  
 李元哲=법무법인 국제.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051-463-7755  
 姜炳斗=한빛은행 반여동지점장. 051-532-0246  
 權秀峰=(주)피코 대표이사. 031-701-1741  
 金祺郢=재경부 세제실 과장. 02-503-9214  
 金明哲=메리츠증권 창원지점. 055-267-6620  
 金武弘=롯데연수원 연수부이사. 031-370-1040  
 金甫相=삼일화훼자재. 02-507-2582  
 金成泰=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2-760-0374  
 金泳鶴=틴스테이지 닷컴 대표이사. 011-258-6456  
 金仁鎭=(주)엔젠투션 대표이사. 02-409-5350  
 金鍾燮=KOTRA 감사팀장. 031-670-3042  
 金知元=(주)아키텍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대표. 02-596-8441  
 金憲秀=(주)데이콤 크로썬. 0505-888-9110  
 羅勝大=(주)신선통상 영업2부부장. 02-3709-9240  
 盧玄相=상지 이엔씨(주) 대표이사. 02-419-9452  
 朴成益=이연정보통신. 02-549-4046  
 朴鍾培=(주)서현파크 대표이사. 02-443-5708  
 朴弘烈=의학협회 신문사 기자.

제 32 회

4월 1일 임기 2년의 대한한의학 회 회장으로 선출  
 朴得松=YTN 도쿄 지국장을 2년 8개월간 무사히 마치고 지난 2월말 귀국  
 姜成輔=경향신문 편집1부장.  
 朴贊龍=MBC 방송국. 3월 14일 부친 별세

02-793-8701  
 裴明哲=조선일보사 편집국 부국장. 02-724-5209  
 裴善進=한빛은행 트윈타워 기업 금융지점장. 02-761-3594  
 徐明秀=(주)대우건설 해외석유 화학 부장. 02-2288-3735  
 孫永守=(주)파라다이스 산업이사. 02-795-2300  
 吳世淳=세광한의원. 02-2057-2469  
 吳賢錫=(주)코암테크 대표. 02-783-0120  
 林榮植=지난 8월 1일 부친 별세  
 金宗진=지난 8월 4일 부친 별세  
 吳昊昌=지난 8월 16일 개업  
 趙廣濟=사하 제일약국 개업(감천)  
 朴英基=지난 12월 모친 별세  
 李滿宰=지난 12월 29일 모친 별세  
 제 29 회  
 胡祥模=지난 10월 16일 모친 별세  
 박종정=지난 10월 18일 부친 별세  
 全璋和=지난 11월 4일 부친 별세. 한겨레치과 원장. 051-610-1444, 019-507-0799.  
 朴壯哲=지난 11월 7일 모친 별세. 도로공사 부장. 011-851-3615  
 許 鐘=지난 12월 26일 음식점 개업. 011-556-7759  
 權斗進=(주)해찬건설 설립. 동기회 총무. 051-784-0213~4, 011-9530-8325  
 徐錫哲=1월 29일 부친 별세. 무진한의원 원장. 051-207-1558  
 宋敬文=2월 3일 부친 별세. 신동아횃집. 051-247-0176, 011-587-3500  
 李忠原=한양레스토랑 개업. 051-505-4466, 011-9541-5509  
 崔正晚=자전상사 대표이사. 051-326-1983, 011-580-1983, (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24동 1201호  
 鄭 估=건양선박설계 대표이사. 051-253-4671, 011-863-4671, (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29동 1602호  
 玄桂星=(주)팔도LG 대표이사. 051-753-0113, 019-553-5351, (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18동 703호  
 裴景煥=(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아파트 105호  
 安靑洪=고려종합국제운송(주) 부산영업소장. 051-466-4770.

011-579-5585. (자택이사)부산 영도구 봉래동 미광마린타워 103동 1702호  
 孫 一=경상대 사회교육과 교수. 051-751-5598, 017-586-5598, (자택이사)경남 진주 문산읍 상문리 187-8  
 朴炳準=신도고등학교 영어교사.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림2차 207동 902호. 051-701-0183  
 朴基贊=동기회 회장. 진흥상사 상무이사. 051-242-0682, 011-860-7869,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1동 현대1차홈타운 103동 1402호  
 李福南=신만덕 럭키1차 12동 104호. 051-338-1198, 011-9331-1198  
 朴性哲=부산지법 민사2부장판사. 051-590-1251~2  
 金鍾明=부산일보 논설위원. 051-461-4102  
 李憲律=부산일보 편집부국장. 017-591-3531  
 金敏鎬=TOP 서울치과 원장. 051-702-2800, 011-573-8044, (자택이사)부산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 215동 403호  
 權晤永=효성병원 개업.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은행 옆. 정형외과 전문병원. 051-751-7337, 011-553-1940  
 徐英鶴=북부산사무서. 051-310-6312, 011-488-9955  
 吳世鎬=동기회 수석부회장. 한일기전(주) 대표이사. 051-304-1828, 011-878-5019  
 윤문수=동기회 부회장. 거제지역 동기회장. 거제 삼성문화관 수영장. 055-630-5231, 011-9534-5232  
 李盛雨=한의학 박사 취득. 이성우 한의원. 051-205-1546, 011-9521-1546  
 李世勇=부산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051-607-2222  
 李淳元=동부지원 형사과. 051-780-1263  
 李海鍾=(주)네오그린 대표이사. 051-503-6424~6, 011-853-3135  
 趙仁浩=(주)SK 상무이사로 승진. 강원본부장. 011-372-5183  
 金祺原=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 4월 9일 부친 별세. 011-867-5305

제 30 회

崔永植=(이전개업)송정한의원.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03-10. 051-701-9966, 011-9512-7199

金昶範=개금1동 동사무소 예비군중대장. 051-892-4113  
 李官雨=(주)JR 법인설립. 부산 남구 대연6동 1763-1 원곡빌딩 301호. 051-632-8882  
 李鍾輝=(주)동양화재 대구지점 지점장. 011-574-7621  
 金源根=동양화재 김해영업소로 전근. 011-878-2495  
 정용운=쌍둥이 득남,득녀 축. 011-564-7440  
 金景三=연산동 소재 약국 개업. 016-566-1893  
 문창진=온천장. 회화학원 개원  
 辛昇學=(주)관우건설 진주현장 소장. 011-868-3423  
 韓文進=(주)네비게이트해운 전문이사로 승진. 011-589-1101  
 安元哲=부산예술문화대학 부학장.



# “그리운 부산항”... 눈시울 적신 봄날총회

### 시카고회 신입회장 최윤환(14회) 선임 작고 동문·가족 명복 빌고 역량결집 다짐

미국 시카고지역동창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 이곳 최윤환 동문(14회) 자택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2년의 신입회장에 최 동문을, 신입총무에 김중환 동문(20회)을 각각 선임했다. 유정호 회장(16회·의사)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김진환(8회) 이근보 전용찬 허남석(이상 12회) 최윤환(14회) 신지재 유정호 조자영(이상 16회) 박진철(19회) 강대철 김중환(이상 20회) 박종원(21회) 김정수(22회) 김우갑 동문(26회)과 가족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종원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교가제창에 이어 최근 유명을 달리한 조석제(9회) 정원조 동문(25회)과 허남석 동문의 부인 허영숙씨의 명복을 비는 묵념, 재무보고, 동문 각자의 근황 소개, 회장 인사, 새 주소록 배부, 임원 개선 등으로 진행됐다. 유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간 동문·가족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낌없이 성원한 결과 오늘과 같은 굳건한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며 “동창회 활성화 촉진을 위해 모두가 한결같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환 신입회장은 취임사를 통

해 “한국의 입시제도 변경에 따라 지난 수년 동안 새로운 후배들을 영입할 수 없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깝다”며 “더욱 지혜로워지고 있는 동문·가족간의 유대 강화에 걸맞게 동창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동문·가족들은 먼저 박진철 직전총무로부터 은퇴 후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재테크정보 등에 대한 슬라이드를 결집인 설명을 들었다.

이어 2시간에 걸친 여흥 한마당은 이역만리 두고 온 고향땅을 그리워함인지 부산항과 관련된 가요가 판을 쳤고 점잖(?)을 때는 동문 몇몇은 가곡을 열창해 맛을 부렸다. 동문·가족들은 ‘봄날은 간다’ 등 계절과 고향을 생각해 하는 노래를 부르며 눈시울을 적셨다.

특히 김진환 박종원 동문 부부·이근보 김중환 동문의 가요경연과 유정호 직전회장의 독일 가곡 열창 등은 객석을 사로잡았다. 용마가족들은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헤어졌다.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용마가족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주 만나 끈끈한 정을 나눈다. 신년회·가족동반야유회·골프대회·송년회 등을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져 역량을 과시한다. 사진은 지난 여름 야유회에서 포즈를 취한 동문 가족들의 환한 모습.

## 두 달새 1억4천만원 모금 제18회, 동기회관 오픈

### 120여 동문 한마음 성원... 신입회장 김길제



제18회 동기회는 지난 4월 13일 오후 6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74-80 영광도서관 건너편 유

80년대 후반에 동기회장을 맡은 바 있는 김길제 신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동기생 모두의 정성이 깃든 동기회관을 잘 가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원골든타워O/T 1913호 동기회관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을 개선, 신입회장에 김길제 동문(MSC 대표이사·사진)을 선출했다.

이성일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먼저 동기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두 달 사이 120여 동문들이 참여, 1억3,83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 이 회장 등 관계자들의 공로를 따져 박수로 치하했다.

오수명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 및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33평 짜리 사랑방 1억원 넘게 투자**  
**실내 인테리어에만 1,700만원 들여 치장**  
**케이블 TV·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 가득**

한편 김 신입회장은 오수명 총무를 재선임했고 등산회장에 김준길·기우회장에 박도형·낚시회장에 강덕룡·골프회장에 남두진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 3월 30일 문을 연 동기회관은 이성일 회장을 비롯 집행부가 앞장서 조성한 1억3,830만 원 중 1억760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특히 인테리어비만 1,700만 원이 든 실내엔 케이블TV·대형냉장고·바둑판 등 각종 편의시설로 꾸며져 있다.

## 본부회보 지원금 500달러 시카고 용마가족 또 쾌척

### 유정호 직전회장 직접전달

미국 시카고지역동창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중고동창회보’ 지원금을 모금, 부산에 있는 본부동창회 사무국에 직접 기탁하는 열성을 보였다.

지난 4월 23일 오전 시카고지역회 유정호 직전회장(16회·의사)은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오피스텔 401호 본부사무국을 방문, 한병조 부회장 겸 사무국장에게 동창회보 지원금으로 미화 500달러(한화 650,000원)를 기탁했다.

시카고회가 이날 기탁한 회보지원금은 최근 선임된 최윤환 회장(14회)이 앞장서 동문들로부터 십시일반 모금한 귀중한 성금이다. 이날 회보지원금을 전달한 유정

호 시카고 직전회장은 같은 달 20일 거행된 제16회동기회 졸업4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 본부동창회를 방문했다.

유 직전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카고지역 동문들의 새 주소록을 전달, 회보 제331호 광고란에 게재해 고국의 여러 동문들과 소식을 주고 받도록 했다.

시카고회는 지난해에도 당시의 유정호 회장을 필두로 “회보를 해외에 발송하려면 국제우편료가 많이 들 것”이라며, 본부 회보 지원금으로 500달러를 모아 본부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다.

또 이 무렵 워싱턴에서도 회보 지원금 100달러를 송금했었다.

### 계·시·판

#### 제8회재경동기회

골프우승 이창근·신성자  
골프모임 잔디회는 지난 4월 4일 안성CC에서 이창근 회장 주재로 109회 정례회를 개최, 24명이 라운딩한 이날 대회에서 남자부 우승 이창근(90타·4·준우승 박지병·3등 김진석·니어리스트상 손세일·행운상 김태규 동문, 여자부 우승 신성자(95타·6·준우승 장은아·니어리스트상 김정화·행운상 정종욱씨 각각 차지.

#### 바둑 4월 우승 최대영

바둑모임 팔선회는 지난 4월 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품기원에서 이유향 회장 주재로 4월 정례대국을 열어 우승 최대영·준우승 강성태 동문 각각 차지(배주원 동문 등 8명 참석).

#### 경팔산우회 관악산 도전

경팔산우회는 지난 4월 14일 재경동창회·용마산악회 공동 주관 관악산 불성사 코스의 등산대회에 김영철 회장 주재로 참가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관악산(629.1m)에는 원효대사·의상·운필 등 3인이 수도하기 위해 지었다는 삼막사와 조선 태조 이성계가 서울을 정도로 할 때 지은 원각사를 비롯해 연주암 불성사 반월암 상불암 성주암 등 절과 암자가 많다. 정상에는 지상레이더관측소가 있다.

#### 제15회동기회

#### 일오기우회 3월 정례대국

일오기우회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빌딩 6층 바둑센터에서 이추남 회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례대국을 벌였다.

#### 사하회 신입회장 권승부

사하회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백숲길비치에서 42차 정례회를 열어 신입회장에 권승부 동문을 선임했고 조일량 총무를 유임시켰다.

특히 김원식 동문은 ‘사하구 30년 거주’ 공로로 당연직 회원 자격을 얻어 특권금 10만원을 쾌척했고, 강민조 전동서 동문은 초대손님이 돼 자리를 빛내주었다.

#### 일오산우회 금정산 올라

일오산우회는 지난 3월 17일 성지곡~남문~금강공원 코스의 산행을 김종광 회장 주재로 펼쳤다.

이날 동문·가족 14명(부인 3명 포함)을 리드한 산행대장은 정종호 직전회장이 맡았다.

## 울산지역동창회 임원 명단

### 고문단

고 문  
박준복(3회) 정원준(3회)  
김기홍(4회) 김상식(8회)  
유병철(9회) 차수명(12회)  
김익도(12회) 조준탁(13회)  
감 사  
김성규(10회) 수석  
김종석(16회)

### 회장단

회 장  
김형수(14회)

### 부회장

강호일(14회) 수석  
이현우(15회) 손용석(16회)  
김길우(17회) 박덕봉(18회)  
성기혁(19회) 박만옥(20회)  
한대운(21회) 박홍조(22회)  
이문희(23회) 서정득(24회)  
박동건(25회)

### 이사단

이 사  
이종만(3회) 김상희(4회)  
박태영(5회) 변봉규(7회)

김계수(8회) 심순봉(9회)  
김병식(10회) 공무갑(11회)  
최병준(12회) 이태남(13회)  
장원주(14회) 서정욱(15회)  
손용석(16회) 오충환(17회)  
양동건(18회) 성기혁(19회)  
박만옥(20회) 박일송(21회)  
박홍조(22회) 이동성(23회)  
윤지현(24회) 황기철(25회)  
민창현(26회) 윤종철(27회)  
권기택(28회) 김철수(29회)  
안호중(30회) 최경침(31회)  
박성구(32회) 최영두(33회)

김종식(34회) 이복근(35회)  
박철중(36회) 이승열(37회)  
진조석(39회) 최 현(40회)  
이성기(41회) 박주인(42회)  
김동우(43회) 추세경(44회)  
강석민(46회) 강병국(47회)  
김우성(8회) 경문회장  
조광수(13회) 울산등대회장  
허용준(21회) 현대중공업  
동문회장  
서인진(25회) 현대자동차  
동문회장

정영식(11회) 울산대학교재직  
동문회장

### 총무단

서정욱(15회) 사무국장  
김광경(33회) 수석  
김종식(34회) 김인수(35회)  
이승열(37회) 진조석(39회)  
이성기(41회)

### 울산지역동창회 사무실

울산시 남구 무거2동 927-6  
TEL: 052-223-9247  
FAX: 052-223-9248